

2007 중국인이 보는 한류

1. 드라마 열기를 통해 보는 "한류"

최근 몇 년, 중국인들은 한국의 콘텐츠들을 통해 쉽게 "한류"를 접하고 있다. TV에서 반복으로 방송되는 한국드라마, 신문에 한국드라마 배우들에 대한 보도, 심지어 인터넷 상의 인기 검색어도 한국드라마 내용 소개, 한국 드라마 다운로드, 한국 드라마 스틸컷 등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요리, '대장금' 주제곡으로 된 모바일 벨소리..... 이 모든 것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눈만 뜨면 "한국식"이 보여 마치 한국 문화 속에 빠져 들어있는 느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현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는 점차 "한국드라마 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드라마"가 당대 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열기

주위 친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물으면, 항상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통화할 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한번 봐봐, 재밌어." 친구가 건의한다. "정말 그렇게 재밌냐?" "그럼~ 미남미녀들이 얼마나 멋있는데." 그 중 한 친구는 "풀하우스"의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고 다른 한 친구는 <겨울연가> 속의 배용준이 더 좋다면서 싸우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 또는 논쟁은 나의 친구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드시 오가게 되는 화제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이 많은 중국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TV만 켜면 한국드라마가 각 TV채널에서의 "높은 방송률"을 몸소 느낄 수 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드라마를 방송하지 않은 성급 TV방송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몇 년전 인기를 모았던 <가을동화>만 해도 12개성 TV방송국에서 방송 되었으며 CCTV 8채널에서 오후에 방송되는 <세계극장(环球影院)>과 저녁에 방송되는 <해외극장(海外剧场)>은 모두 연속 순환하여 한국 드라마를 방송한 적이 있다. 2004년을 예로 들 때, CCTV 8채널에서 방송된 <보고 또 보고(团圆篇)>는 29%의 시청률로 그 해 시청률 1위를 차지했으며 2부터 5위도 각각 <보고 또 보고>의 기타 4부가 차지했다. 2004년 인기 드라마 순위 10위안에 드는 수입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만 7부를 차지했다.

1993년,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질투>를 수입했으며 1997년 CCTV에서 방송된 가정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정식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서막을 펼치게 되었다. 이외 1998년 <해바라기>, <토마토>, <안녕! 내 사랑>

등 한국 드라마의 방송으로 인해 안재욱, 김희선과 같이 중국인들이 익숙한 한류 스타들도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반복하여 재방송 되고 있는 <목욕탕집 남자들> <명성황후> <보고 또 보고> <인어 아가씨>로부터 시작해 <노란 손수건> <대장금>과 <굳세어라 금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급 tv방송국을 위해 많은 시청률을 창조했는데 더욱이는 저녁 11시 이후, 시청률이 10%에 달해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기타 드라마들을 초과하고 있다. 몇 년전 CCTV 국제 사이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외국 드라마>에 대한 조사 중에서 한국 드라마 <인어 아가씨>는 71%의 절대적인 우세로 대작 <형제련>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명성황후>인데 여전히 한국 드라마로서 28% 관중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에 비해 기타 국가의 드라마는 겨우 1% 밖에 안됐다.

한국 드라마는 소박한 특징과 독특한 매력으로 수많은 중국 TV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TV방송국이 2004년에 방송한 649부 수입 드라마 중 107부가 한국 드라마로서 총 수의 16.5%를 차지했으며 CCTV 8 드라마 채널이 수입한 외국 드라마 중 57%가 한국드라마였다. 2005년 7월, CCTV8은 대외로 "해외극장"확장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일부 우수한 드라마의 방송권을 전문 구입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컸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

많은 중국인들은 수많은 수입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우선 선택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다. 중한 문화의 교류와 상통성, 중국 사회 전환기에 사람들 맘속의 감정 수요,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정", 미남미녀 스타들로 뭉쳐진 연예인, 드라마 중 세부 묘사에 대한 설계, 음악의 효과,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한국 풍습에 대한 소개 등은 모두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를 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개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인들이 예절 바르고 훌륭한 문화 전수와 계승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관중들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의 표현 방법이 중국 사회 전환 시기 사람들의 심리를 만족 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는 부드럽고 세밀한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동만의 논리 미덕을 전달했으며 사람과 사람사이 교류를 원하고 이해와 사랑에 대한 희망을 영원한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중국인들이 맹목적인 "하한족"이라고 하기 보다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꿈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멋진 미남 스타들을 드라마를 즐겨보는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드라마가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관으로서 순수함과 정감이라는 미덕을 체현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한국 드라마는 대중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중국 국산 드라마가 이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대장금>은 궁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보여 주었지만 실은 일종의 정면적이고 감동적인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 관중들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수시로 현실 생활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 또 보고>가 방송된 후 사람들은 이야기가 너무 진실해 보이며 마치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느낌이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주변에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한국 드라마가 위대한 현실주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달하고 있는 애정, 친절, 우정과 의리가 관중들의 심금을 흔드는 핵심 내용이며 관중들이 인정하는 가치 관념과 도덕 표준 그리고 심미적 취향에 대한 반영이다.

물론 한국드라마를 부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랑을 잠시 꿈꾸게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꿈꾸고 있던 화면을 그려준 것뿐이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드라마가 생활화된 스토리가 너무 시대에 떨어져서 싫다고 하였다. 한국드라마가 제일 아름다운 건 아니므로 부정적인 논란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 드라마의 유행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드라마가 가져다주는 영향

한국드라마가 현재 중국에서 일종 사회성적인 열기와 사회 반응을 가져온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이 21세기 이후로 세계와 발걸음을 맞추고자 하는 희망을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 사회에 가져다 준 영향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 드라마 한편, 한편을 통해 점차 독특한 영역에 침투되어 한국인들의 사유와 한국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주의하지 않는 사이에 중국 TV관중들은 이미 한국 문화의 침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중한 양국의 문화교류가 빈번히 진행되면서 한국의 스타,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이 대량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한 일종의 추세로 되었다. 후진타오(胡锦涛)주석이 2005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양국 청년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출했다.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력이므로 앞으로 일정한 시기 내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향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드라마와 한류에 대해 중국인들은 깊이 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비록 세계 경제 문화 글로벌시대인 오늘에 모든 민족이 외래 문화의 영향을 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계성 문화교류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가져다주

는 한국식 문화태도와 가치 관념의 영향에 대해 중국인들은 자신의 명확한 판단을 가져야 한다. 중국인들은 개성, 차이, 모든 생활방식 그리고 자유 선택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넓은心胸으로 국가 간의 교류와 문화 대화를 통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문화 다원화 발전의 오늘을 평가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추구하고 한류 현상은 현재 중국 문화 영역에 출현된 일종의 유행 문화 열풍 현상이다.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열풍은 중국 문화영역이 부단히 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폭발했다. 중국 관중들이 할리우드 대작에 지쳐 있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의 부동한 풍격과 색채는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았다. 유행되는 사물 일수록 쉽게 소실되는 법, 새롭고 신선한 사물을 추구하는 tv관중들은 현재 새로운 유행 폭풍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 드라마의 영향은 짧은 시간 내에 소실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마치 역사의 흐름과 같아 꼭 일정한 시기에 등장했다가 또 일정한 시간을 거친 후 시대의 수요에 따라 변화 될 것이다.

한국 드라마가 대중들 마음속에서의 지위는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왔다. 한국드라마는 시장의 시련과 검증 받은 후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는 또한 중국의 영상업계에 앞으로 걸어야 할 길, 강렬한 한류의 침습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한류 열풍 속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중국 드라마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사고해 보아야 한다.

2. 중국: “한류” 지속, 한국: “한풍” 일어

李宇 于玉兰

중국 국무원 총리 원찌아바오(温家宝)가 한국을 정식 방문하면서 한중 교류 1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 교류의 해" 이벤트들이 한국에서도 막을 열게 되었다. 한중 교류 15년 이래, 양국이 각종 영역에서의 교류와 합작은 큰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한국 대중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한류"가 중국에서 환영 받게 되면서 동시에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풍"도 점차 한국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0여만명이 각종 방식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131개 대학이 중문과 전공을 개설하고 1000여개 고등 학교가 중국어를 제2외국어 과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로벌 첫 공자학원이 2004년에 서울에 설립된 이후로 현재 허가를 받고 한국에 설립된 "공자학원"이 이미 8개에 달한다. 이외 주한 중국 문화센터는 서울에 설립 된지 2년 좀 넘는 사이에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5만 여명의 현지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접속률이 40여 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들은 모두 "중국어 열풍"과 "중국문화 열풍"이 이미 한국에서 흥기하고 있음을 말한다.

"중국어 열풍"과 "중국문화 열풍"이 뜨겁게 달궈 오르면서 더욱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이외 중국과

관련된 tv방송국과 tv프로그램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 2002년 한국에 첫 전문 중국어로 방송되는 tv종합 채널 HAOTV가 출현했으며 2004년에는, 중국 TV프로그램을 한국 전국 각지에서 24시간 방송할 수 있는 케이블 TV방송국 중화TV방송국이 설립되었다. 중화TV방송국은 중국 시사, 경제, 문화 프로그램 방송을 특색으로 동시에 일부 중국 드라마도 방송 한다.

한중 양국 경제무역과 인원 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각 지역은 계속 "중국성"건설 계획에 나서고 있다. 현재 까지 인천, 무안 등 10여개 도시가 이미 "중국성"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정하여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